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소식

9월 연합캠프 기간 중 학부모 특강

오는 9월 24일~25일에 있을 차세대 영재기업인센터 연합캠프 기간을 이용하여, 영재 자녀 양육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학부모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 기 | '11년 9월 24일 (토) **| 교육시간 |** 3시간(14:00 ~ 17:00)

| 교육내용 | 영재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 자녀를 영재기업인으로 키우는 방법, 나는 어떤 부모이며 내 자녀의 영재성은?

| 문 의 | 차세대영재기업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http://www.ip-gifted.org/cgye/center/notice.asp>)

10월~11월 상담 일정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는 '개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 개인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이후 진로설계에 기반이 되는 자기이해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적합한 개별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방식과 유사하게 10월~11월 도중, 2기 교육원생들 중 상반기, 하계 방학 및 하계 캠프 중 기초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교육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담 신청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 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메일과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10월중 | 서울 및 경기 지역 **11월 중 |**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

8월 CEO와의 만남 한국공학한림원 8월(제126회) CEO포럼 참석결과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는 'CEO와의 만남'을 통해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에게 일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국내 최고의 CEO와 만남으로써 그들의 성취수준을 높여주고, 동기와 열정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 주 제 | 부상하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우리의 대응

| 연 사 | 홍기준 한화케미칼 사장(태양광에너지), 장주옥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본부장(풍력에너지)

| 일시/장소 | '11. 8. 29(월), 18시 / 한국기술센터 21층 '기술인 클럽'

| 학생참석자 | 판곡중학교 3학년 이세린(KAIST 영재교육원, 1기)

창성국제중 2학년 이지현(POSTECH 영재교육원, 2기)

| 주요활동 | •만찬 사회자가 공지사항 전달 시 차세대영재기업인 소개

•만찬 및 CEO와의 대화를 통해 유대관계 형성 및 조연 청취

•CEO 특강 청취 및 토론 참석

| 참가결과 | •학생들은 이번 포럼에 참가해서 자신에 대해 PR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체 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식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CEO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영재기업인 교육생이 기업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성공한 기업가를 만날 기회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 CEO포럼의 참여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교육원생들이 리더와 만날 수 있도록 'CEO와의 만남' 참여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후 CEO와의 만남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장소 | '11. 9. 26(월), 18시 / 한국기술센터 21층 '기술인 클럽'

| 주 제 | 중국의 공학 교육

| 참가방법 | 향후 교육원 공지를 통해 신청서 접수



이포세

[IP世]; IP세상, 세상을 세움

2011년 9월호 [통권 제9호]

영재 칼럼
과민감성

역량 칼럼
수학 · 과학능력

심리·정서 칼럼
청소년 우울과 공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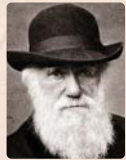
CONTENTS



센터칼럼	영재 칼럼 [알 수 없는 우리아이 2]	과민감성	03
	역량 칼럼 [영재기업인의 핵심역량 8]	수학 · 과학능력	06
	심리 · 정서 칼럼	청소년 우울과 공부 (2)	08
교육원 소식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소식		10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소식		11

인생에서 한 시간이라도 쉽게 낭비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창의성이란
인내와 의지로 내일과 악수하는 것
먼 길을 거쳐 무언가를 더 깊이 파고드는 것



찰스 로버트 다윈(1809.2.12~1882.4.19)

영국 생물학자, “종의 기원” - 생물의 진화론

수기 공모 및 의견 수렴

〈앞세〉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로 보내주십시오. 〈앞세〉에 대한 의견이나 기사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환영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기 분량 : A4 용지 한 페이지

접 수 처 :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이윤조 전문위원

tel. 02)3459-2744, email. yo3283@kipa.org web : www.ip-gifted.org/cgye

영재 section

알 수 없는 우리아이 ②

과민감성(Highly sensitive & Intensive)

유명 영화배우나 가수들을 살펴보면 강렬한 신체적 에너지나 격정적인 감성을 지닌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조디 포스터는 동료 배우인 러셀 크로우에 대해 “평상시에는 매우 재미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중요하거나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할 때는 극도로 긴장하고 예민하다.”라고 평하였습니다.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격렬함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자연스럽게 성공의 원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열정과 집중력은 창의적인 영재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아마 몇몇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서 이러한 성향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예술가들과는 달리 우리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야 하므로 자신의 강렬한 집중력이나 감성적 열정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나 감성적 열정, 강한 집중력은 창의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입니다.

창의성에 대한 저명한 학자인 Micheal Piechowski는 창의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강렬한 특성을 과민감성(Overexcitability)이라고 정의하고 아래와 같이 5가지 형태로 표현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체적 (Psychomotor)

감각적 (Sensual)

지적 (Intellectual)

상상력 (Imaginational)

감성적 (emotional)

영재학생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과민감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과민감성

이런 과민감성을 지닌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활동량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유독 많이 움직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적게 자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는 자녀의 창의적 성향으로 인한 특성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이들은 말이 빠르고 경쟁심이 강하고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급하고 열정적입니다. 따라서 충동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톱을 물어뜯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보이는 행동을 습관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감각적 과민감성

이 유형은 인간의 오감과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및 심미적 형태에 매우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인식하지 못한 소리를 듣고 짜증을 낸다거나, 아주 약한 냄새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은 음식이나 공해에 특히 예민하며, 옷을 고를 때도 천의 부드러움이나, 상표의 위치 등에 대해서 까다로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음악, 풍경, 예술작품에 대해서 매우 섬세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지적 과민감성

영재학생들은 지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자극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한 특성은 학습 및 문제해결과 관련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높은 호기심, 집중력, 논리적 및 분석적 사고, 탐구심, 자아성찰, 학구열 및 문제해결력, 사회·윤리적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상상력

이러한 과민감성을 지닌 사람은 매우 선명하고 강렬한 상상력을 나타냅니다. 창의적이고 발명가적인 특성이나 이전에 보았던 사실에 대한 선명한 기억,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환상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풍부하게 설명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상상력과 관련하여 민감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적인 측면에 대한 특성도 지니고 있어 시, 음악, 극작품에 대한 선호, 유머감각, 사실과 환상의 조합 등도 이러한 과민감성을 지닌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감성적 과민감성

이 특성은 창의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민감성 중에 특히 자주 논의되는 성향입니다. 감성적 과민감성은 한 개인이 나타내는 감정적 격렬함이나 열정을 표현합니다. 즉, 복잡하거나 극단적인 감정표현, 타인에 대한 공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민감성, 감정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선명한 기억, 불안함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소심함, 수줍음, 자기비판, 열등감, 사회정의나 공정성에 대한 높은 민감성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한 학생에게서 모두 나타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러한 강한 민감성은 다른 사람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과민감성을 지닌 영재학생들은 학교나 집단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민감성은 성격이나 기질상의 문제가 아닌 단지 표현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이며 이는 뛰어난 창의적 재능을 지

닌 영재들의 특성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신다면, 자녀가 자신의 재능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잠재성을 개발해 꿈을 성취하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높은 감성적 에너지를 지닌 영재 자녀가 성공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도록 도울 수 있는 양육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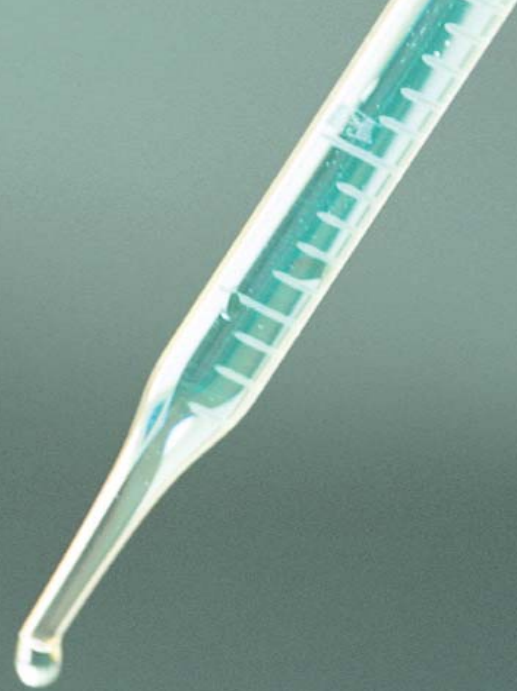


이 행은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교육학 박사 / 교육심리, 영재창의성 전공
helee71@kipa.org / 02-3459-2745



영재기업인의 핵심역량 ⑧

수학 · 과학능력



활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몰입과 기본적인 학업성취도를 바탕으로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하위역량으로 수학 · 과학에 대한 학습태도와 수학 · 과학 활용능력이 있으며, 다시 수학 · 과학에 대한 학습태도는 학습흥미와 몰입으로 구분되고, 수학 · 과학능력은 정량적 자료해석능력, 과학적 추론능력,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으로 구분됩니다(표 참고).

학부모님께 수학 · 과학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내신과 밀접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학 · 과학능력은 내신관리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닌 학습하는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시험결과에 불안감 없이 흥미가 있는 수 · 과학분야의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에 학습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또 학생과 대화를 나누실 때, 복잡한 상황과 논리를 과학적 추론이나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표현하시거나, 학생에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수 · 과학을 배우는 시기에 실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같이 키운다면, 그만큼 흥미와 몰입이 쉽게 일어납니다.

차세대영재기업인 핵심역량 중 소개되지 않은 마지막 역량은 수학 · 과학능력입니다. 수학 · 과학능력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또한 차세대영재기업인이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말하므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두기 위해서는 보다 탄탄한 수학 · 과학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 수학 · 과학능력은 수학 및 과학과목의 내신을 높이면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학교내신과 관련있는 수학 및 과학에 대한 기본지식은 수학 · 과학능력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됩니다. 다만, 수학 · 과학능력에는 기본 지식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수학 · 과학에 대한 학습태도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지적능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타고난 지적능력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상투적인 말이 될 만큼 에디슨의 “성공은 1% 천재성과 99% 노

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수학 · 과학능력도 수학 · 과학에 대한 흥미 · 열정 ·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학 · 과학능력이 높은 학생은 수학 · 과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바탕으로 관련 학습활동에 뚜렷한 흥미를 보이고 몰입하는 성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수학 · 과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 · 과학은 내신을 올리기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몇몇 성인들도 대학에 들어가 다른 학문분야를 공부하거나 취직하여 업무를 할 경우 수학 · 과학적인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기억이 나질 않아 고등학교 때 학습하였던 관련 지식을 다시 학습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습자가 평소 수학 · 과학적 지식을 일상생활과 연관짓지 못하였거나, 수학 · 과학을 실생활에 적용 · 활용하는 연습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학 · 과학적 능력들을 포함하여 개념정의하면, 차세대영재기업인의 수학 · 과학능력이란 수학 및 과학

수학 · 과학능력의 하위역량 및 구성요소

하위역량	구성요소	개 념
수학 · 과학 학습태도	수학 · 과학 학습흥미	수학 ·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평소 수학 · 과학에 대해 일상적, 직업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성향
	수학 · 과학 학습몰입	평소 수학 · 과학탐구활동에 즐거움을 느끼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탐구활동을 통한 성취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는 성향
수학 · 과학 활용능력	정량적 자료해석능력	그림, 표, 그래프로 표현된 자료를 활용목적에 맞게 분류, 정리하고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과학적 추론능력	과학적 사실을 민첩하고 정확하게 조직화, 일반화시키고 다른 상황의 문제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능력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비구조화된 문제상황을 수학적 개념을 적용,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형식화하여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

이 윤 조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교육학 박사 / 직업교육, 환경교육 전공
yo3283@kipa.org / 02-3459-2744



청소년 우울과 공부(2)

우울감이 높으면 왜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

우울한 기분은 정보처리에 방해 :

공부를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노력을 요하는 복합적인 인지적 과정입니다. 즉, 학습 문제나 학습하는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주어진 학습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하고, 암기하는 등의 다양한 사고 과정과 정보 처리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에는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울한 학생들은, 멍하니 가만히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과제와는 거리가 먼 “백일몽”에 빠지는 행동을 자주 보이고 쉽게 집중력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있고, 공부를 한다고 하기는 해도 능률이 잘 오르지 않을 때가 많으며 결국 책상에 앉아있는 것에 비해 성적이 낮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은 “너는 왜 책상에 앉아 딴 생각만 하니?, 도대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해 놓고도 왜 성적이 그 모

양이니?”,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니? 딴 생각을 하는 거니?”...하는 말로 자녀들을 책망하곤 합니다.

공부에 대한 흥미 감소와 정신운동지체 :

우울한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떨어져 생활이나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흥미가 사라집니다. 또한, 생각이 느려지고 새로운 일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는, “정신운동지체(psycho-motor-retardation)”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학습 시에 주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동기부족, 의욕부족, 활력의 저하, 무기력증과 같은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며, 생리·화학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써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학생들 중에서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시작조차 못하겠다.”, “자꾸만 실패할까봐 두렵다.”,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조절이 잘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을 잊게 해주는 다른 활동들에 몰두 :

우울한 감정은 마음에 심히 불편감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로부터 피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즉,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공부나 과제에 몰입하기보다는 일단은 우울한 마음의 고통을 털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재미있거나 말초적 흥미를 자극하여 당장 지금의 마음 상태를 잊게 해주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게임중독, 지나친 TV시청, 판타지 소설 몰입, 지나친 인터넷 중독, 지나친 휴대폰을 이용한 채팅, 단음식 섭취 등과 같은 행동은 우울할 때 더욱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과도한 게임, 지나친 TV시청, 판타지 소설 몰입, 지나친 인터넷 중독 등은 현실감각을 둔화시켜 더욱 멍해지게 만들고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연히 학습에서 더욱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성적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청소년 우울증상을 다소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자녀가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너 왜 자꾸 게임만 하니? 너 왜 자꾸 TV만 보니? 게임중독과 TV 시청, 판타지 소설은 현실감각을

떨어뜨리고 학업에 지장을 준다더라.” 라고 억박을 지르시면 안 됩니다. 자기도 알 수 없는 기체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TV 꺼, 게임 좀 그만하고, 당장 판타지소설 집어버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울감을 해소해줄 방법부터 찾으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우울감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인 감기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우울한 상태로 지내거나 위에서 말한 활동(게임중독, 지나친 TV시청, 판타지 소설 몰입 등)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우리 애가 심리적으로 많이 버겁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이 심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떻게 정서적인 지지를 하여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하며, 주변의 전문 상담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성급한 마음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려고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 쉬우며, 천천히 그냥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해받고 있다는 것이 전달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면의 힘이 생기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윤성민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심리학 박사 / 상담심리학 전공
ysm0714@kipa.org / 02-3459-2928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은 인문소양을 바탕으로 미래통찰력, 지식재산능력,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IP-CEO를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역량 신장을 위한 온·오프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소개

▶오프라인 교육 : 캠프를 통한 협업교육과 멘토교육

미래기술분야(IT·BT·NT·ST·ET·CT)의 학습과 조별 아이디어 생성을 통해 협력성과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창조성 신장
⇒ 4단계 IP-C-E-O 협업교육 모형에 따라 진행

구분	교육단계	절차	내용
협업교육	IP Issue-Posting	전문가 교육을 통한 문제제기	캠프 주제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가 포커스를 다르게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조별로 문제를 찾고 해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화두 제시
	C Collaboration	조별 토의를 통한 아이디어 도출	전문가의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조별로 논의를 통해 문제를 설정하고, 자료 검색 및 역할 분담을 통해 해결 아이디어 도출
	E Elaboration	발표, 전문가 평가 및 피드백	학생들이 찾은 문제와 해결 아이디어를 전문가에게 발표하고 평가 및 피드백
	O Outlying	사후관리를 통한 실적화	정교화 단계를 거쳐 보다 발전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생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 실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실적과 역량을 획득
멘토교육	벤처기업가	- 실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젊은 벤처기업가들과 학생들 간의 교류 - 학생들이 성공적인 기업가로서의 꿈을 키우고, 필요한 역량들을 갖추기 위한 동기부여 - 향후 학생들이 기업을 설립할 때에 참고할 Role-model이 되며, 실질적 지원	
	특허교수	- 특허출원 실적이 우수한 KAIST 교수들로 구성 - 전문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 실제 특허의 내용 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식재산 생성에 대한 동기 부여 - 이후 심화과정과 전문 과정에서 학생들이 생성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자문과 기술적 협력 제공	

교육 일정

▶온라인 교육

과정	개강일시	교과명	차시
기본과정	9/5	기업가정신 미래기술/지식융합	2 7
	9/19	기업가정신 미래인문학	3 8
심화과정	9/5	기업사례연구 창조인문학	6 7
	9/19	융합지식경영 미래기술(중등)	9 8
	9/19	기술융합(고등)	9

▶오프라인교육

- ◇ 지난일정: 8월 16~20일(하계집중교육)
- 기본과정 : 사업모형개발, BT분야 강연 및 협업 활동, 특허명세서작성 교육 및 특허 전자출원 등
- 심화과정 : 리더십교육, 커뮤니티 중간보고 및 발표, 특허 전자출원, 기업문제해결 토론 및 발표 등
- 공동 : 서울대학교 손욱 교수의 '창조적 혁신의 길', 우리역사바로 알기시민연대 박용준 사무국장의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 KAIST 황성재 연구원의 '발명 아이디어', 체육대회, 페스티벌 등 진행
- ◇ 다음일정: 9월 24~25일(KAIST-POSTECH 연합캠프)
- 자세한 일정 추후 공지

8월 하계집중교육 이모저모



알립니다

「2012년도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기본과정 선발 안내」

- 원서접수: '11. 9. 1(목) ~ 10. 10(월), 18:00까지 (<http://www.apply114.com>)
- 지원자격: 2011년 현재 중학교 1학년 ~ 3학년 재학생
- 1차(서류) → 2차(캠프 및 면접)전형
-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차세대영재기업인 홈페이지: <http://www.ip-gifted.org>
 -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http://ipceo.kaist.ac.kr>

본 교육원은 '미래 기술을 주도하는 창조적 영재기업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사업제안 과정(기본)과 사업예비 과정(심화)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 과정은 'Dream the future(미래기술 선견)', 'Discover the future(기술 타당성 탐색)', 'Develop the future(사업 타당성 탐색)', 'Deliver the future(사업 제안)'의 4개의 테마로 운영됩니다.

8월 오프라인 집중교육

지난 8월에는 1기, 2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집중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1기 교육생은 'Develop the future' 테마 하에서 사업 타당성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기 교육생들은 'Dream the future' 테마 하에서 미래기술을 선견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찾아보는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생	후기
1기 교육생 후기	사업환경 분석, 고객 분석, 파괴적 혁신성 분석 등을 아우르는 사업기획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실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듯해서 더욱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고객 분석, Job Statement, Job Map, 사업아이템 분석 등 전 과정이 재미있었다. 실제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 "고객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실제 제품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 - "비즈니스 모델: 돈을 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지 고객가치를 어떤 상품/서비스로 제공할지 고민해야 한다."
2기 교육생 후기	미래선견 트랙을 통해서 미래 사회 및 미래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웠다. - "이제까지 미래를 바라볼 때 항상 To the Future 관점으로 봤던 것 같고 앞으로는 상상력을 가지고 From the Future 관점으로 미래나 사물을 보려고 노력해야겠다." - "미래를 바라보는 도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았다." - "미래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 - "막연한 미래 사회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유익했다."



알립니다

「2012년도 POSTECH IP영재기업인교육원 기본과정 선발 안내」

- 원서접수: '11. 9. 1(목) ~ 10. 10(월), 18:00까지 (<http://www.apply114.com>)
- 지원자격: 2011년 현재 중학교 1학년 ~ 3학년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연령의 정규학교 미재학생(초등학생 지원불가)
- 자세한 사항은 차세대영재기업인 홈페이지 (<http://www.ip.gifted.org>)의 모집요강을 참조하세요.

온라인 교육 일정

9월에는 1기 교육생은 'Deliver the future' 테마, 2기 교육생은 'Discover the future' 테마를 기반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 ▶ 1기 : 여름 오프라인 집중교육에서 교육받은 사업기획서 작성 방법을 기반으로, 9월 한달 동안 개인 별 관심분야에 대해 사업기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제출일 10월 9일)
- ▶ 2기 :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심분야의 기술을 탐색하는 기술탐색과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미래사회와 IFR]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분야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기능중심으로 예측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출일: 개인별로 선택한 과제 제출일을 확인하세요)